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3(土)	14(日)

News

- 현대차노조 파업 결의 ②
- 광주 납치·테러 잇따라 ③
- 최경주 PGA 첫날 2위 18



Jeollado

- 그 사람-박상구 前회장 ⑦

Entertainment

- 유동근 "내가 연개소문" ⑧
- 뮤지컬 영화 열풍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우엉 13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비보이의 역동성을 5·18과 접목시키는 공연이 오는 5월 광주에서 첫선을 보인다. 사진은 광주의 비보이팀 '배틀모드'의 연습 장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5·18, 비보이를 만나다

강한 비트 음악에 맞춰 온 몸으로 추는 춤 '비보이(B-boy)'와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5·18'이 만난다.

4월 말 개봉 예정인 5·18 영화 '화려한 휴가'(감독 김지훈)를 제작한 (주)기획시대는 최근 5·18 이야기를 비보이로 표현한 공연을 만들어 무대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보이는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남자(Breakdancing boy)를 뜻하며, 브레이크 댄스를 넘어 힙합 스타일까지도 포함시키는 춤 장르 중 하나.

이번 공연은 개인이나 단체로 춤대결을 하는 '배틀' 형식을 취하는 비보이의 역동성을 기본으로 깔고 마임을 포함한 연극적 요소를 가미해 5·18 광주의 보통 사람 이야기를 담는다. 특히 이번 기획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비보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광주민주화운동의 송고한 뜻을 전해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신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획시대 측은 최근 '배틀모드' 등 광주의 비보이들과 접촉, 공연을 위한 실무 작업에

'배틀모드' 등 광주 춤꾼들
'5월 정신' 춤으로 형상화

◆◆◆◆◆
'화려한 휴가' 개봉 맞춰
오는 5월 광주서 첫 공연

들어갔다. 광주의 정신을 비보이로 형상화시키는 것인 만큼 광주 출신 춤꾼들이 공연에 제격이라고 생각한 것. 이를 위해 조만간 오디션 등을 통해 출연자를 결정 한 후 3월말께 작품을 완성시켜 쇼케이스 무대를 가진 뒤 5월에 정식 무대를 가진다는 계획이다.

스토리 작업을 위해 기획시대 측은 최근 영화 '화려한 휴가'의 대본을 각색하는 중이다. 기획시대 측은 광주에서의 첫 공연 후 장기적으로 서울, 해외 공연을 염두에 두고 있다. 5·18을 알리는 좋은 수단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다.

비보이 공연은 강력하고 단순한 비트의 춤 비보이를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관객의 흡입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대사가 없기 때문에 스토리도 복잡하지 않아 외국인에게도 메시지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주)기획시대 장영목(37) 기획팀장은 "지금까지 무대나 영상에서 극화시킨 5·18은 송고미만을 너무 강조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세계 최강인 비보이라는 새 문화 아이콘을 5·18과 합친다면 젊은 세대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쉽게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품이 성공할 경우 송승환씨가 제작한 '비보이코리아'와 국내 최고의 비보이 그룹 '익스트림 크루'가 출연하는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등과 함께 문화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 비보이의 실력은 '배틀오브이' 4연패 등 연이은 국제 대회 우승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증되면서 지난해부터 각광받기 시작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靑 "내달 개헌 발의"

野3당 반대... '대치 정국' 장기화될 듯

신당과 "盧대통령 탈당" 요구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달에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개헌 관철을 위해 여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야당들은 현 정부 임기중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헌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정태호 청와대 정부팀장은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내달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팀장은 이날 오전 MBN '송지현의 뉴스광장'에 출연, '개헌을 다음달쯤에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체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차성수 시민사회비서관과 김종민 국정홍보비서관 등은 잇따라 TV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병환 비서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내주부터 언론사 간부들을 신년인사를 겸

해 순차적으로 만나 개헌안 제안 배경과 취지를 설명할 방침이다. 이에 발맞춰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헌법개정특위를 당내에 구성, 간담회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개헌론 확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론의 비판적 입장으로 유리한 국면에 있다고 보고, 개헌 제안에 대한 무시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과 민노당도 개헌 제안의 부적절성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개헌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열린우리당 내 통합신당파가 이날 '국민대통합신당추진 위원회의회' 구성기로 합의한데 이어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실사구시와 안개모 등 통합신당파 4개 모임을 가진 후 "대통령이 개헌제안의 진정성을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당적의 정리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결정은 빠른 수록 좋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청약가점제 전면 확대

9월부터 모든 아파트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공 뿐 아니라 민간택지의 아파트도 모두 청약 가점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적용키로 했던 민간택지 중소형을 비롯해 당초 가점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민간택지의 중대형 아파트도 모두 가점제가 시행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가 청약 가점제 적용을 받게 됐다. 시행 시기는 공공, 민영 아파트를 통틀어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오는 9월

부터 원칙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공공과 민간 아파트에 모두 적용한다는 원칙만 정해졌을 뿐 분양 물량의 100%를 다 적용할지, 일부만 먼저 할지, 평형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건교통부는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9월부터 실시기로 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늘리는 등 확대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근태 의장은 12일 확대간담회에서 주재한 자리에서 "민간 분양원가 공개는 이제 한 걸음을 뚫을 뿐"이라며 "대전까지 왔는데 마저 가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제42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접수중!
▶ http://marathon.kwangju.co.kr ▶ 전화: (062)220-0541

목재가공산업의 새아름 '자이리'

이달 목재가공에 관한 모든것은 '자이리'와 상회하세요.

자이리 사업분야

- 목재가공사업
- 목재가공사업
- 목재가공사업
- 목재가공사업
- 목재가공사업
- 목재가공사업

광주·전남 목재가공사업협회
전화: 062-337-5535
팩: 062-334-5535